

성장호르몬제 사용 쇠고기 수입 중단을

시민의 모임 약제 국내생산도 금지 촉구

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(회장 조영향)은 18일 BST(산유향상호르몬) 등 인공성장호르몬제의 생산과 이를 사용한 쇠고기 등 육류·유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킬 것을 보사부 등 관계당국에 요청했다.

BST(Bovine Somato Tropin e)는 특히 젖소의 우유생산 촉진에 위해 쓰이는 호르몬으로 유럽 경제공동체(EEC)에서는 이미 88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전면금지됐다.

BST는 소나 인체에 안전하다

는 제조업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혈관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으며 신생아와 단백질 소화를 못하는 질환자들에게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발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시민의 모임은 미국·호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쇠고기수입국들은 BST사용을 허용하는 데다 다량투여 가능성도 높아 국내 수입쇠고기를 비롯한 우유·분유·치즈 등 유제품의 안전성이 우려된

다고 지적했다.

90년 12월1일부터 시행될 보사부의 '식육의 성장호르몬 사용기준'에는 BST성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현재 국내 축산농가의 사용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.

시민의 모임 송보경 이사는 "최근 국내 한 대기업이 BST생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"고 밝히고 "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시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"고 주장했다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